



한인소망교회 비전

마태복음 11:28-30

WELCOME
WORSHIP
DISCIPLESHIP
Hope Church

주일예배 및 모임안내

주일1부예배 / 본당	9:00 am
주일2부예배 / 본당 & 라이브	11:00 am
Youth / 아가페홀	11:00 am
유초등부 / 아가페홀	11:00 am
영유치부 / 아가페홀	11:00 am

수요대학 / 본당	8:00 pm
금요기도회 / 본당	8:00 pm
새벽예배 (화-토) / 본당	6:00 am
청년부예배 (토) / 아가페홀	12:00 pm

교회를 섬기는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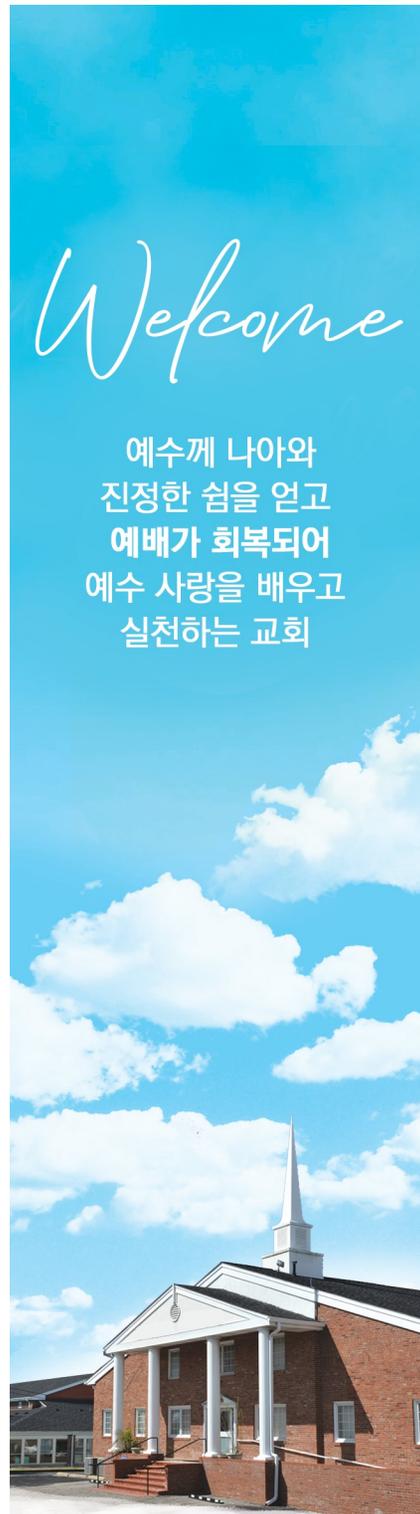
Hope Church

담임목사	김성직 목사
방송/청년	오정훈 목사
소망학교	이신웅 전도사
중고등부	문강한 전도사
유초등부	(청빙중)
영유치부	
시무장로	백형수 윤순기
휴무장로	오귀록
은퇴장로	김대희 배상진 임병갑 장기림 백근조
	이덕홍 이창진 정 민 이종학 윤순화
찬양인도	황규식
지휘자/서무	박은실
반주자	노윤실 사모 (1부, 새벽) 김은화 이화니 (2부)
통역자	김예람 이화니
방송	조준한 김예람

열방을 섬기는 이들

Missionaries

태 국	배종원	도미니카	이광호
중 국	이주애	북한고아	Cross Mission
케 나	이영규	방글라데시	임대휘
칠 레	황신재	아파치인디안	강원용
모로코	김영목	키르키즈스탄	바나바/다비다



Welcome
예수께 나아와
진정한 쉼을 얻고
예배가 회복되어
예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

7.10.2022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부 9 AM 2부 11:00 AM

LIVE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세인트루이스 한인소망교회
Korean Hope Presbyterian Church of St. Louis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www.hopestl.org

주일예배

SUNDAY WORSHIP

경배와 찬양	찬양팀 (15분 전부터 시작됩니다)
* 기원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성서교독	교독문 29번 시편 Psalm 66편
참회의 기도	사도행전 Acts 2:38
찬송	찬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같이
기도	오귀록 장로
광고	인도자 / 김성직 목사
봉헌 & 찬송	찬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다같이
봉헌기도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성경봉독	마태복음 Matthew 7:13-14; 누가복음 Luke 13:22-30, NT p 10 & p 118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 김성직 목사
Sermon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 결단의 찬양	찬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다같이
* 축도	김성직 목사

* 일어서서 Please stand up

성례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자신의 죄를 씻은 것을 깨달은 영혼은 성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세례 받기를 갈망하게 된다.

- 거룩한 예식

성례는 반드시 거룩이 동반되는 거룩한 예식이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와와 기구를 만지는 자들에게 먼저 정결한 의식을 치르게 하셨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자신을 깨끗이 해 거룩한 것으로 드러내게 되어 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므로 주께서 직접 표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사람이 성례를 정할 수 없다. 여호보암은 자신이 마음대로 의식들을 정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되었다.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표시

성례는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표시이다. 표시는 은혜를 나타낸다. 이것은 피의 언약을 보게 한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 내적인 것을 알려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목 박히셨으며,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새롭게 한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돌을 세워

모든 사람으로 기억하게 한 것과 같다.

성례는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어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 새 언약의 유익들을 눈으로 보게 해 주는 것이다. 이 유익들은 오직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이것은 세대를 이어서 전달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녀들이 물을 때 그 의미를 대답해 주어야 한다.

-보증과 적용

성례는 믿음에 의한 의로움을 보증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순종을 도전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것을 분명히 보여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살게 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셨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새 언약의 유익들이 우리에게 적용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확신하게 된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46)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하나씩 살펴보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홍만 교수의 "52주 스터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발췌해서 나누는데요, 늘 내 안에 있는 신앙부터 점검하고, 또 맡겨진 모든 것을 바르게 세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6주 말씀

질문 91.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유효한 수단이 됩니까?

답. 성례가 구원의 유효한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나 성례를 집행하는 자의 덕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성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질문 92. 성례가 무엇입니까?

답.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 가운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눈에 보이는 표시로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보증되며, 적용됩니다.

[해설]

- 성례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성례 자체가 능력이나 효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자들이 주님께 나아와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눅 13:26)" 라고 말했다.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 성례에 물리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었다. 할례가 그들에게는 어떤 효력이나 유용성이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 자들이었다.

더욱이 성례를 집행하는 자에 의해서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는 아무 것도 아니며, 오직 도구에 불과했다. 빌립 집사가 시몬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에게는 어떤 효력도 없었다.

- 성례의 효력은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에 달려 있다

성례의 효력은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에 달려 있다. 주님은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다. 그리고 성례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달려 있다. 성령이 그 영혼을 깨우치셔야 한다.

성시교독

교독문 29번 시편 Psalm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 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다같이]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7:13-14; 눅 13:22-30)

<본문 속으로>

1. 넓은 문은 어디로 인도하는 문입니까? (마7:13)

2. 좁은 문을 어디로 인도하는 문입니까? (마7:14)

[토요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2. 담임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과 권능을 주셔서, 귀한 영의 양식을 말씀으로 능력있게 전하고 주님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게 하소서.

3. 모든 리더쉽들에게 항상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 반석 위에 모두 한 마음으로 동역하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풍성한 섬김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주일]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1.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득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2.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의 선하심을 내 안에서도 점점 회복해 나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3.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로 주께 납작 엎드러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기도]

정 민 장로님: 요양원에서 다리 재활 중이십니다.

이창진 장로님: 무릎 수술 후 회복 중이십니다.

안성실 권사님: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이십니다.

배상진 장로님: 교통사고로 등에 골절을 입으셔서 보호대 착용 중이십니다.

기도제목 PRAYER REQUESTS

[월요일]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하소서

1. 오직 성경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께서 옳다 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2.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가 점점 맺히게 하소서.
3.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반면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하소서.

[화요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부모인 내가 먼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소서.
2. 하나님만이 중심 되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되게 하소서.
3. 성경적 가정의 모범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공경하며 순응하게 하소서.

[수요일]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주께서 맡겨주신 자리이기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2. 성경 말씀에 기초한 선택과 집중으로 학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3. 세상과 아무런 마찰이 없이 편하

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목요일]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1.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소서.
2. '코로나19'을 지나가며, 각 나라와 민족들이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3.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흩어진 주님의 몸 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어디서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금요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소서

1.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2.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아 거룩한 계보를 이어서 교회와 민족과 맡겨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3. 흔들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당당하게 믿음의 뜻을 정하게 하소서.

<생활 속으로>

1. 오직 주님만이 열고 닫으실 수 있는 이 귀한 생명의 문을, 주님께서 친히 열린 축복의 문으로 교회 앞에 두셨기에, 우리 교회 역시도 열린 문으로서의 사명을 언제나 충성되이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열린 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맡겨진 이들에게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혹 우리들끼리만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건 아닌지, 그러다 행여 "닫힌 문"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함께 나누시고 우리를 돌아보세요.

2. 이 좁은 길 위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 뜻대로 열매를 맺으며, 오직 예수 공로만 의지하여 힘써 이 땅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진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한 싸움이 맞는지, 주 뜻대로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나가고 있는지, 함께 나누시고 우리를 돌아보세요.

예배를 섬기는 이들

Jul 10	대표기도	교회청소	애찬담당	설교번역	헌화
	오귀록 장로	중국 구역 (7월)	봉사부	김예람 자매	

Jul 17	대표기도	교회청소	애찬담당	설교번역	헌화
	윤순기 장로	중국 구역 (7월)	봉사부	이화니 자매	

향기로운 예물 7/3/2022

주일	\$925	선교	\$70	주일학교	\$0
십일조	\$5,079.53	구역선교	\$0	작정	\$200
감사	\$540	방송부	\$100	첫열매	\$291.75
건축	\$140			청년부 보조	\$100
				헌금총액	\$7,246.28

헌금외 수입금

				합계	\$0
				입금총액	\$7,246.28

교회헌금 KHPC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온라인 <http://hopestl.org/online-donation>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 '코로나19' 속에서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

(1) '매일 큐티하는 삶': 이제 새벽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화-토, 6AM)

(2) '성경 읽기': 연초에 나눠드린 '성경읽기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요!

(3) '신앙서적 읽기': 안내포스터와 신간서적 책장이 본당 입구에 있습니다. 사무실(박은실권사님)에 연락주시면, 개인이 한 번에 한 권씩 2주간 빌려보실 수 있습니다.

(4) '기독교영화 보기': 지난 목회자컬럼을 참고해 주세요.

2. Driveway 심방

코로나19의 상황에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 먼저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3. Youth Roots Retreat

7/25(월)-28(목) at Illinois Wesleyan University.
7/10(주)까지 등록받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문강한전도사님께 문의해주세요.

기도구역

방글라데시 구역 (심명자 구역장)과
임대취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가정

팽중호 교우 위해서